

아동학대가 신체상(bodyimage)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자폐인 Dona Williams를 중심으로 -

정은*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신민정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요약》

삶의 전체적 과정에 있어서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을 이끌어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이다. 신체상은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끊임 없이 세계(주변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가 신체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자폐인 Dona Williams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의 신체상 발달 과정이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라는 사회적 이름하에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및 그 가능성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아동의 다양한 자기자극행동들은 피학대 경험에 맞서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나가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인간의 정체성은 막연히 정신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체경험에 기반한 삶의 핵심적 구성요소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아동학대, 신체상, 정체성, 장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 들어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는 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제껏 아동학대가 주로 물리적, 신체적 폭력 위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지금은 나아가 아동에 대한 모멸적인 시선 혹은 교육적 타임아웃과 같은 물리적 폭력성이 감추어진 조

* 교신저자(cpe21@hanmail.net)

용한 무시, 따돌림 등과 같은 관계양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되고 있다(이호철, 2001; 김경옥 외, 2009; Miller, 2005, 2006; Cyrulnik, 2006). 이러한 연구 동향의 변화는 물론 과거 우리가 학교나 가정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체벌과 같은 구체적인 학대 형식들이 현재는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지나친 학업에의 강요와 같은 타인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가는 현실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묻혀 마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아동학대가 확연히 감소한 것처럼 알려지는 것과는 달리 아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학대행위 역시 안타깝게도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방희정, 2005; 이배근, 1993; Straus & Stewart, 1999). 다시 말해 이러한 현상들은 아동학대 양상이 갈수록 더 일상적으로 만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의 몸과 정신에 대한 일상적 통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감증이 높아가는 이면에서 아동학대가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더욱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더 풍요로워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왜 이런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김진석(2007: 423)의 지적대로 정말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과거 사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지만, 이상하게도 교육적, 문화적, 복지적 차원의 폭력은 확장” 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개인의 몸에 대한 사회적 통제 문제는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외모지상주의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일찍이 Foucault(1991, 2003, 2006)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몸’이라는 개념으로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인 몸, 즉 우리 각자의 몸은 오롯이 개개인에 속한 것 같지만 인간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몸은 언제나 그 시대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 속에 존재해 왔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은 삶의 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생물적 기초가 아니라 세계와의 소통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 받고 길들여지는 생물-심리-사회적 통합체이다. 특히 사회적 존재라는 유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인간의 몸은 결국 삶의 생성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세계)를 잇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이것을 영유아기 발달과정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는데 아기는 출생 시 자신의 몸과 엄마의 몸 그리고 세계와의 구분 감각이 없으며 자기 몸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해 후천적으로 이러한 분리를 배워나간다. 예를 들어 아기가 자신의 몸을 빨고 비비고 하는 행위 같은 것이 이것을 배워나가는 모습에 속한다. 아기는 이렇듯 자신의 몸을 통한 직접적인 관계적 행위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알아나가는 데 이때 주변인을 포함한 세계를 어떻게 느끼느냐에(자신에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유적 존재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신체상(bodyimage)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그의 정체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즉 한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상은 곧 그 개인의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정체성은 우리 삶의 기본 틀로서 끊임없이 삶의

내용에 개입한다. 그렇다면 신체상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를 위해선 인간의 감각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에게는 감각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오감(五感)이 있는데 이외 또 하나의 감각 즉 제육감(第六感)이라는 것이 있다. 제육감이란 “근육, 힘줄, 관절 등 우리 몸의 움직이는 부분에 의해 전달되는, 연속적이면서도 의식되지 않는 감각의 흐름”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 몸의 위치, 긴장, 움직임은 이 제육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지되고 수정”된다(Sacks, 2006: 93). 그런데 Sacks(같은 책: 146)의 표현대로 오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지만 제대로 인정도 대접도 못 받고 있는 이 제육감은 아마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발휘되기에 더욱 그런 것 같다. 다른 인간감각들에 비해 상당히 늦게 발견된 이 감각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C. S. Scherrington에 의해 ‘고유감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1890년대의 일이다. 외감각(exteroceptor)이나 내수용(interoceptor)과 구별되는 감각으로서 고유감각(proprioceptor)은 인간의 자기신체 이미지(신체상) 형성의 바탕이 되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각이며 따라서 고유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자아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된다(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Dona Williams를 통해 다룰 것이다). 결국 신체상이란 고유감각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우리가 세계를 만나가는 기초이자 과정으로서 정체성 발달의 핵심을 이루며 삶 전체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상 형성 및 발달은 아동이 처한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아동학대와 같은 폭력적, 적대적 발달 조건은 그렇지 않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의 신체상 발달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며 나아가 아동의 행동 및 정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갈수록 만연화되고 다양해져가는 아동학대의 현실은 이미 우리에게 학대 문제를 단지 개별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회 및 교육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반성적 성찰이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껏 학대관련 연구들(홍강의, 1997; 이경숙 외, 2002; 노정숙 외, 2003; 김성준 외, 2009)을 살펴보면 이 연구들이 기본적으로는 사회나 교육 구조적인 면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학대 경험이 해당아동의 심리정서 발달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해 왔고 이에 기초하여 아동학대라는 주제는 현실에 있어서 예방 혹은 사후 치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라기보다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특히 아동의 경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에게 일정정도 강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는 소위 ‘문제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사건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를 넘어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논거가 요구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Dona Williams의 경우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장애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소위 ‘장애인(아동)’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알고 보면 아동학대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특정 장애의 부산물인지 그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최근 활발하게 문제제기 되고 있는 반응성 애착장애가 그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히 양육환경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반응성 애착장애는 그 해당아동의 표현들이 자폐증과 매우 흡사하여 대부분 자폐증을 가진 장애아동으로 치부되었고 그러면서 그 바닥에 깔린 아동학대라는 폭력의 흔적은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간과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Dona Williams의 경우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혹은 교사, 기존세대 성인들)가 기대하는 모습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시작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상태가 나빠져서’ 어떤 장애진단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특별한 교육 혹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학대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Williams, 2005; Klein & Kemp, 2009; 아울러 정은, 2006: 559-560 참고). 즉 장애아동의 현실은 아동학대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강압되는 면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다수의 장애아동들의 개인사를 잘 살펴보면 지나치게 위축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이들의 행동상의 문제는 특정 장애의 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피학대 경험 하에 형성된 이들의 소외된 신체상에 기인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자폐인은 감각적으로 지나치게 위축되고 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잦고 적극적인 인위적 자극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오래도록 사람들이 믿어왔지만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자폐인 Temple Grandin(2006)과 Dona Williams(2005)의 자서전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자폐인은 감각이 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예민한 사람들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계속적인 인위적 자극을 통해 세상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분명 가공할 만한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들어 차츰 긍정적 행동지원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가고 있으나 장애아동이라는 사회적 이름은 여전히 너무나 간단하게, ‘큰 고민없이’ 아동학대의 면죄부가 되어버리곤 한다(정은, 2009a; Klein & Kemp, 2009 참고). Vygotsky(2001; 정은, 2009b)의 지적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서 표현되고 있는 ‘전형적인’ 장애아동의 행동들의 기원이 그 아이의 생물학적 기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달과정상의 원초적 영클어짐에 기인하는 부차적 산물인지에 대한 고민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본질이 왜곡되면서, 외형적 증상의 교정 내지 소멸 위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교육과 치료, 복지 서비스 속에서 (장애)아동의 피학대 경험은 고스란히 그 아동의 자기반영체 속으로 녹아든다. 바로 신체상이다. 자기 자

신으로부터 소외된, 일그러진 신체상 발달에 기초하여 자아가 발달하는 것이다. Dona Williams(2005: 336)의 표현대로 이들은 이들을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태어났고, 나중에는 그 ‘세상’에 대응하느라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인간의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신체상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II) 이어서 학대경험과 신체상 발달 문제를 자폐인 Dona Williams의 경우에 비추어 살펴보고(III). 여기서 피학대경험 하의 신체상 발달 문제는 먼저 동일시 과정과 몸의 이중적 소외 현상(III-1)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피학대 경험에 맞서는 인간 활동을 재조명하여(III-2) 학대 받은 몸의 신체상과 그의 정체성 형성에의 얽힘 문제를 성찰해 보려고 한다. 아직 장애영역에서 아동학대 문제나 신체상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작업의 제학문적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 연구는 우리 아이들의 몸을 통해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인간의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신체상의 중요성

한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상은 그의 정체성이고, 정체성이란 곧 그의 삶이다. 인간발달과정에 있어 신체상 발달은 특히 영유아 발달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한다. 아기가 물질세계에 대하여 반응하고 자신의 몸을 실험하는 여러 형식들, 예를 들어 소리에 대해 고개와 눈길을 돌리는 행위, 냄새에 대해 손을 휘젓고 혀를 날름거리는 행위, 만지기, 빨기 같은 행위들을 통해 인간 중 보편의, 동시에 자기 고유의 신체상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Wallon; Voyat, 1984; Jantzen, 1994; Cyrulnik, 2009: 214-215 이하 참고). 이를 통해 아기는 출생과 더불어 자신이 엄마와, 또 세계와 구분된 독립적 공간(즉 신체)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또 자신의 몸을 ‘알게’ 된다. - 참고로 Breger는 이와 관련해 아동이 꿈속에서 상처 입은 신체상을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Breger, 2003: 221-235 참고). - 바꾸어 말해 신체상은 인간이 태어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내부로부터 발현되어 자각되는 어떤 선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매개물에 대한 대상적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즉 신체상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신체의 움직임들을 통해 세계와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며 자아(‘나’)가 형성되는 바탕이 되고 나아가 인간의 사고가 생성되고 자라나게 하는

근간이 된다. 따라서 신체상이란 인간의 몸과 정신(사고)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지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인간은 몸의 감각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890년대에 신경생물학자 C. S. Scherrington이 발견한 고유(수용)감각은 몸의 경험에 있어 바탕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걷거나 달리거나 할 때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몸의 공간적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대부분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느낌을 알게 되는 것이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7: 217). 이렇듯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 몸의 느낌, 촉감 등은” 단순한 생체적 지각을 넘어서 “상상력 넘치는 사고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준다”(같은 책: 220).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유감각적 사고가 “우리 자신의 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그것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물에 대한 우리의 느낌에까지 확대된다”(같은 책: 229; 이와 관련해서는 아울러 거울신경세포의 역할을 참고할 수 있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olmeman, 2006: 69-74 참고). 이러한 느낌의 확장은 쉬운 예로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라켓에 대해 갖는 감각, 장인들이 망치에 대해 갖는 자기 손 끝 같은 감각, 운전자가 차를 확장된 몸으로 감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몸을 어떻게 ‘상상’ 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몸의 연장들은 몸과 운동 감각적이고 고유수용 감각적으로 일체화”되며, 이런 식으로 내가 다루는 것이 더 이상 ‘타자’가 아닌 ‘나’의 연장일 때 그것은 나의 의지와 욕구에 따르게 된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7: 232, 234).

그러므로 고유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신체는 자기가 내는 신호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고, 글자 그대로 자신을 ‘소유’하는 것 즉 자신을 자신으로 느끼는 것이 중지된다”(Sacks, 2006: 147). 이것은 신체상 장애의 극단적인 경우로 고통 받는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먼저 환상지 환자(김태련 외, 2004: 63-65)와 같이 신체 일부분이 더 이상 없는데도(예: 다리 절단) 있다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 또는 반대로 완전히 고유감각을 잃어버린 크리스티너(Sacks, 2006: 93-113)처럼 신체에 이상이 없어도 본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뚜렷한 신체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구체적 삶의 진정성이다. 다시 말해, 앞서 고유감각이 없으면 자신을 자신으로 느끼는 것이 중지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곧 그 해당 개인의 정체성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 보자면 환상지 환자의 환각의 경우 이것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클 크레이머에 따르면 환각 팔다리 증세의 소멸이 도리어 환자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절단 환자의 경우 환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리가 의족일 경우, 소위 신체 이미지 즉 환각이 의족 부분과 정확하게 들어맞아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스럽게 걸을 수 없다”(Sacks, 2006: 136 재인용). 이런 이유로 환각이 사라지면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유감각을 잃어버린 크리스티너의 경우를 보면 그녀가 잃어버린 고유감각을 시각이나 평형기관(전정계)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전략은 우리가 춤이나 운동을 할 때 거울을 보고 몸의 균형이나 모양새를 잡는 게 훨씬 더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인간의 끊임없는 보완활동은 그 원래의 손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손상된 기능들이 다른 방식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망가진 신체상 또한 건강한 신체상과 마찬가지로 인간 정체성의 핵심에 자리하여 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yrulnik(2009)는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그 개인의 역사성, 즉 그 개인의 몸의 역사성이 갖는 의미(역할)를 강조한다. 인간의 신체는 단순한 생물적 기초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작용을 하는 인식매개체이며, 인간의 신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말초신경계의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라는 것이다(Cyrulnik, 2009: 252, 280, 296). 그럼 여기서 학대 받은 몸의 정체성 문제로 넘어가 보자. 피학대 경험이 당사자들의 신체상 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의 드러난 정체성 형성 과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먼저 한 인간이 어떻게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인간은 태어나서 몇 년 정도 성장하면 ‘나’ 라는 느낌을 ‘대상’ 과 구분하여 갖게 된다. 이것은 아동의 언어발달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처음 말을 배워 한 동안 아동은 자신을 지칭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다(예: “이거 철수 꺼야”). 그러나 그 시기가 좀 지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을 ‘나’ 라고 지칭하기 시작한다(예: “이거 내 꺼야”). 이런 식으로 독립된 자아 형성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나’ 와 ‘대상(타인, 세계)’ 의 구분이 정체감 형성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자기정체감은 나와 대상과의 분리, 나아가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의 통합, 중요한 인물들과 동일시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외상적 경험은 이렇게 이루어진 통합을 깨뜨리고 정체감을 파편화시킨다(김순진 외, 2003: 105-106). 피학대 경험 역시 이러한 외상적 경험에 해당할 것인데 이러한 갈등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리(dissociation)와 통합(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해결한다. 해리는 “갈등을 만들어 내고 불안을 야기하는 사고, 충동, 느낌, 행동을 자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로 “억압, 방어, 무의식적인 현상들을 포함” 한다. 물론 적절한 갈등의 해결은 자기의 통합된 성장을 수반한다. 즉 발달의 특정한 시점에서 해리나 통합 과정의 발생 여부는 개개인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 환경에서의 기회와 제일 중요하게는 불안의 기능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ger, 2003: 249).

이렇듯 일반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해리와 통합의 양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자기 발달 과정 그 자체가 갈등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시에 의한 자기의 성장은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Breger, 2003: 248). 불안은 이러한 발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간의 심리기체중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불안 그 자체(불안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처한 삶의 맥락 속에서 특정 불안이 갖는 구체적인 기능이다. 다시 말해 똑같이 불안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본인이나 주변인이 이를 지각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제공된다면 이때 불안은 관계 친화적으로 기능하는 셈이 되지만, 이와 반대로 불안이 관계 적대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결과는 쉽게 자기소외, 관계소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자기분열인데 이때 이들의 정체성은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Dona Williams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이 경험한 극심한 관계적 소외 속에서 진행된 자신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내 안에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갔다. ... 그래서 나는 그들의 그 대단한 '정상'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 정상적으로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삶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였다(Williams, 2005: 137, 139-140).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난 구체적 행동을 보자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건 질색이었다. 내 다리는 잠시도 가만 있질 못하기 때문이었다. 땅에 닿아 있어야 마음이 놓였다. 내 몸이 땅에 많이많이 닿을수록 기분도 더욱 좋아졌다. ...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짜증날 정도로 쉴 새 없이 혼잣말을 잘했다. ... 안절부절 못하게 불안할 때 나는 충동적으로 말을 많이 했다. 때로는 혼잣말도 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내가 말하지 않을 때마다 내 자신이 귀머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었다. 내 감각은 내가 내 자신의 세계에서만 움직일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외부의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Williams, 2005: 46, 53, 85).

즉 겉으로 보기에 이런 행위는 그 당사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 이런 산만한 행위는 불안정한 감각수용구조에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누군가가 쉴 새 없이 몸을 흔들고 뒤척일 때(이것은 의미 없는 혼잣말 같은 언어적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사람이 불안해서 저러는 건가 싶지만 사실 그는 더 자주, 더 확실하게 안정된 느낌을 갖고 싶어 하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사람일 따름이다. 즉 그것은 보다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자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의미 있는 과정에 속하

는 행동들이다. 바꾸어 말해 자기분열이나 해리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라도 인간은 자아를, 자기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존재이며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남은 과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승인되지 못하는 경험 속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의 발전적 지양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 지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추측건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 모양의 자기분열이나 해리 형식은 단지 당사자가 자신의 외상적 경험을 어떻게든 견뎌 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즉 자기를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예: 자해) 속에 가장 자기다운 모습(여기서 ‘자기’는 사회와의 소통 과정이자 결과체의 의미이다), 자기통합의 논리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다음 장에서는 학대와 신체상 발달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Ⅲ. 학대와 신체상 발달

1. 동일시 과정의 문제와 몸의 이중적 소외 현상

최근 유아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인생의 아주 초기부터 자기와 동류인 인간에 대해 특별히 강한 관심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타인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단순히 물리적 자극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듯하다(히타노 기요오, 이나가키 가요코, 2003: 71).

인간이 성장하는 동안 겪게 되는 무수한 경험 속에서 타인은 개인에게 가장 큰 환경이 되어준다. 사람이라는 이 큰 환경 속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계와 접촉하고 관계하게 되는 방식은 이렇듯 철저하게 외부, 특히 타인(주변인)의 영향이 크다. 아동은 양육 상황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보통 부모를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들을 통합하며, 이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의 기초를 형성한다(김순진 외, 2003: 105). 즉 양육 상황에서 아이가 주양육자로서의 엄마를 동일시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결과들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의 기쁜 표정 혹은 화난 목소리를 흉내 내면 이에 대해 엄마가 반응하고 이것은 다시 엄마를 흉내 내고 있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류는 단순한 주고받기 차원의 상호작용이 아닌 엄마의 무의식적 욕망을 아이가 자신

과 연관 짓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기만 하는 아이의 첫 미소, 처음 내는 소리, 처음으로 손을 움켜쥐기, 첫 냄새, 이 모두가 사실은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매개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아이의 아무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작은 반응, 요구들도 사실은 아이와 관계하는 구체적인 사람, 특히 부모의 의식적, 무의식적 기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에 의해 유도되는 반응들 속에서 아이의 표현이 분류되고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유아기 아동의 동일시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yrułnik, 2009: 73).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여러 발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분명히 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생명 조직체로서 아이가 각기 형성해 나가는 다양성의 주요 조건은 어쨌거나 부모의 개성(예: 삶의 가치, 아동에 대한 기대, 성격)과 개별 아동의 감수성이며 이 두 조건이 만난 독특한 자리, 모양에 대해 Cyrułnik(2009)는 ‘흔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조직체는 제각기 감수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며, 개개의 조직체는 고유의 감수성에 따라 흔적의 대상을 내재화하고, 그 대상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는다”(같은 책: 234). 이러한 맥락에서 Cyrułnik(같은 책: 226)는 나아가 “흔적은 관계를 조직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흔적은 일종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환경이 어떤 개인의 특정 흔적과 관련될 때 그 개인의 반응방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흔적이 생물학적인 잠재성을 제한하는 셈이다(같은 책: 226; Miller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Miller, 2005, 2006). 이런 문제를 애착형성과 관련해 예를 들어 보면, 영유아기 애착경험이 성인의 심리적, 정서적 불편감들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예: 불면증, 근육통, 소화불량, 피로감, 현기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Waller & Scheidt, 2004; 김용희, 2006: 25-26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보다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을 불리하게 지각하거나, 자아상이나 타인상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김용희, 2006: 27). 즉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학자인 G. H. Mead(1934)로부터 대인 관계 정신의 학자인 H. S. Sullivan(1953)에 이르기까지 자기 혹은 자아에 대해 강조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렇듯 인간의 신체상은 유아기 애착경험을 통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아동은 이에 기초하여 향후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신체상을 형성한다. 여기서 신체상의 내용은 긍정적, 부정적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학대 경험이 신체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때 그것이 비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 당사자의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아이가 학대처럼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신체상은 자아분열이라는 모습으로, 자기소외라는 모습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일반아동보다 상처받기 쉬운 자폐아동에게서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Dona Williams는 자신이 겪은 아동기 학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세 살짜리 눈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방 저 편에 있는 애걸하는 목소리를 향해 조용히 눈길을 보냈다. 뚜껑이 열린 채로 내 앞에 놓인 스파게티 통조림을 내려다보았다. 내 손에 포크가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먹던 걸 딱 한 방울 흘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결코 그 끝나지 않는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 충격 같았다.

내 입 속으로 행주가 구겨 넣어졌다. 구역질이 났다. 숨이 막혀 그것을 게워냈다. 애걸하는 목소리가 지독한 욕설을 퍼부어대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전쟁을 치렀다. 나는 겁고 흰 줄이 쳐진 밧줄을 마치 뱀이라도 되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것이 내 얼굴을 후렷했다. 나는 울지도, 말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했다. ... 차갑고 미끄러운 탁자에 쓰러져서 코로 토했다. 나는 물에 빠졌다고 생각했다(Williams, 2005: 218).

또 다음 인물은 선물로 받은 뚜껑이 달린 진주 빛 도자기 접시를 어머니가 화나서 일부러 아이 앞에서 깨뜨렸을 때 Dona Williams의 반응이다.

나는 벌어진 이 일의 부당함에 너무나 화가 나서 칼로 내 얼굴을 그어버렸다. 내 뺨에도, 이마에도, 턱에도 칼자국이 났다. ... 어머니는 ... "애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 나는 아홉 살이었고, ...내 생각으로는, 나의 이 같은 행동은 지극히 제 정신으로 한 일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어야 그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길을 잃었고, 뒷에 걸려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중이었다(Williams, 2005: 75-76).

마지막으로 다음은 자신이 치료 과정에서 그렸던 그림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훗날 우연히 읽게 되면서 회고한 내용이다. Dona Williams는 그런 전문적 해석이 당시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다시 그림을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자 했던 진실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전문가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너무나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잔인하게도 그 당황스런 어둠 속으로 나를 끌고 갔고 그런 와중에 내 감정의 자아를 죽여 버렸다. 내 몸은 죽지 않았지만, 내가 노력할 때마나 내 정신은

수천수백 번이나 죽어야 했다. 그 결과 나는 영혼이 한두 개가 아닌 사람이 되었다(Williams, 2005: 174).

이상으로 Dona Williams가 자폐아동으로서 겪은 학대경험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의식 분열은 극대화되고 정서적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소외적 소통 방식 속에서 정작 본인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러한 자기역사 속에서 자기를 느끼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적 소통은 어떤 일관성 또는 의미 있는 방식이 아닌 가상의 의사소통이며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신과 상황(타인)을 거짓방식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아동이 발달과정에서 거치는 이러한 갈등들은 아동의 성장을 수반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 경우 아동은 인간이 세계와 만나가는 기초인 자기 자신, 즉 신체상에 문제를 겪게 되고 이의 결과로 그 개인의 인성문제(다중인격, 혹은 해리성 장애 등)나 자아분열, 또 자기소외현상의 심화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경우 무력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는 감각인 신체상이 이렇듯 외부 세계와 적절히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우리 일상에 산재되어 있다. 그 예로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성장기를 보고하고 있는 한 회고록(Klein & Kemp, 2009)에 소개되어 있는 제프 모이어의 경우를 들어 보겠다.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 제프 모이어는 자신의 시력 상태에 대한 주위의 불신(주위사람들은 아이가 거짓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척한다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흉내를 내며 살아야 했다”고 고백하면서 당시 자신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회고한다(같은 책: 89-90). Klein과 Kemp가 엮은 이 성인장애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이들의 삶 전반, 특히 어린 시절에 있어서 ‘장애아’라는 이유로 얼마나 갖가지 사회적 제약이 보호와 배려라는 명분하에 진행되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일방적 소통으로 인해 성장기 내내 겪었던 동일시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소화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사람 또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받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그 대상과의 동일시를 한다. 바꾸어 말해, 대상과의 동일시 즉 모방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중요한 생존전략 중 하나이며 Dona Williams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Dona Williams의 경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듯 많은 경우 이들은 자신을 몇 가지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분열시켜 세계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자신을 만들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Breger(2003: 273)의 지적처럼 초기 아동기의 자기 분열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이들은 흔히 착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연기하며, 바로 몇 분 전에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여러 역할들을 흉내 낸다. 이 모두가 아동기 해

리의 전형인 것이다. 즉 해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로의 적응기제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해리와 같이 과민하고 의존적인 불안정한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이고 불리한 것만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발달과정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같은 책: 267).

두 말 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자기감’을 발달시키는 것, 즉 동일시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안정감의 중요한 원천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개인이 심한 내적 불안과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기감은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아이의 욕구를 적절히 잘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듯이, 갈등에 의하여 분열되고 불안이나 다른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 쉬운 자기일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Breger, 2003: 255). 우리는 흔히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정체감이, 자아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아를, 정체성을 형성,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 즉 정서적 안정감이 정체성의 바탕이 된다고보다 정체성 자체가 나름의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해 나갈 수 있는 형식이자 내용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한 개인에게 그 자체가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Dona Williams의 고백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다음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피학대 경험에 맞서는 인간 활동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하겠다.

2. 피학대 경험에 맞서는 인간행위에 대한 성찰

민감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동물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어미와의 관계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이하 Cyrulnik, 2009: 226-227 참고). 이런 동물은 어미를 쫓지도, 어미의 부름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흔적을 남긴 개체와도 어울리지 못하며 홀로 떨어져 지낸다.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민감한 시기에 고립되었을 경우 이러한 모습은 쉽게 관찰되는데 이들은 “무리에 섞이지도 못하고 또래를 피하거나 공격”하곤 한다. 구체적인 모습을 서술하자면 “이 동물은 거리를 두고, 물러서기도 하며, 놀이를 통해 객관화하는 법도 익히지” 못한다. 요컨대 “모든 것을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절망하고 외톨이로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동물들은 또한 사소한 일에도 곧잘 자해를 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가족 없이 자라는 2개월에서 6개월 된 아기들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 이런 아기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일상적인 변화들은 매번 커다란 “미지의 세계”이다. “가정에서 자란 아기들은 낯선 것과 대면하면 흥미를 느끼지만, 가족 없이 자란 아

기들은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뭔가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애착의 대체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때 가장 안정적이면서 영속적인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체”이다. 그래서 “이런 아기들은 모든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자기 몸에 집중시킨다. 즉 몸을 흔들어대거나, 반복적인 버릇이나 자위행위에 탐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자극행위들은 이들에게 나중에 “정신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Cyrulnik, 2009: 326). 즉 심리정신적 차원에서의 자기소외성으로 연결되기 쉬운 것이다.

앞 절에서 ‘흔적은 관계를 조직한다’고 하였는데 “흔적의 대상을 갖지 못한 생명체가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것은 동물에게든 인간에게든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동물은 그런 상황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 몸을 흔들거나, 자기 몸의 냄새를 맡기 위해 코를 킁킁거리거나, 자위행위를 하면서 모든 행태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맹렬한 감정을 쏟아 붓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해를 가하고 자신을 물어뜯고 다른 개체가 접근을 시도하면 벽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한다. 요컨대, 사람이든 동물이든 민감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내면 자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yrulnik, 2009: 227). 이것은 Dona Williams에게도, 그녀가 만난 자폐아동 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애가 끔찍한 발작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가장 그 애다운 것이기도 했다(Williams, 2005: 322).

자기와 세계 사이에 존재해야 할 상호작용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즉 거친 세계(자극)가 아무런 여과과정없이 들이닥치게 되면 이것은 본인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에 Dona Williams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았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내가 대답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였다, ... 나는 외부에 의해 통제받는 일을 소름끼치도록 무서워했다(Williams, 2005: 17, 138).

그녀는 이와 같은 공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즉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려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자기소외를 통한 세계에로의 적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혼잣말과 같은 자기자극행동은 자신과 세계 사이의 얇은 필터를 보완하는 완충제 역할로 기능하게 된다. 자폐아동 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데

이것을 눈치 챈 Dona Williams는 앤이 세계로부터 불안감을 느낄 때 자신의 손으로 팔뚝을 리듬감 있게 두드리는 행동을 제안했고 후에 앤이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323-326 참고).

그 애는 자신을 안심시켜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애에게 어떤 일관된 양식을 가르쳐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자기 자신을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 애의 손을 잡고 그 애가 자기의 팔을 두드려 보도록 했다. 가락과 리듬과 두드림을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Williams, 2005: 322, 323).

즉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인간은 흔히 상동행동(반복행동)이나 자해행동과 같은 자기자극행동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행위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몸에 대한 감각찾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신체상의 뿌리가 되는 고유감각 찾기 작업이다. 어릴 적 Dona Williams의 독특한 놀이 방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그녀의 진술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맨 처음 내가 꾸었던 꿈을 기억한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기억해 낼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오래된 꿈이라고 해도 좋겠다. 나는 하얀 기운 속에 있었다. 무슨 색인지 알 수 없는 밝은 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긴 했지만 실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하얀 세계 같은 것이었다. 내가 그 점들을 통과하면 그 점들도 나를 뚫고 지나갔다. 그것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 (Williams, 2005: 16).

이처럼 비통합적인 고유감각에 기초해 형성된 신체상을 가지고 살았던 Dona Williams가 상동행동과 같은 자기자극행동을 통해 자신의 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일까? 즉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혹은 쓸모 없는 자기자극행동을 계속 하게끔 만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응답성이다.

앞서 피학대 경험이 쉽게 무력감을 부른다고 했는데 무력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응답성을 경험하는 것이다(히타노 기요오, 이나가키 가요코, 2003).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경우 이들이 신체적인 불쾌감이나 생리적 결핍을 호소할 때 어른이 응답해 주면 이것은 아동이 단순히 무력감에 빠지는 것을 막아 줄 뿐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행동으로 환경 속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 응답성은 무력감에서 탈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유능감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이중효과를 갖는 셈이다(같은 책: 93-94).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행위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 밖에 없는 피학대 아동의 다양한 자기자극행동에 대해 우리는 분명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적절한 응답성 없이는 (사회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학대에 맞서는, 저항하는 표현을 찾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피학대 경험에 맞서는 표현들에 대해 사회가 이것을 이유삼아 실제로는 아이를 더 학대하고 나아가 장애라는 이유로 쉽게 비인간적으로 대하는데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시할 만한 심각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Dona Williams가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열두 살)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레이놀즈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와 소통하면서 많은 신뢰감을 갖게 되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의 교부수첩을 보게 되었을 때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서술한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다.

거기에는 "도나 윌리엄스는 정서장애임,"이라고 적혀있다. 도나는 물었다,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쓰셨죠? 내가 정서장애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교무수첩을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가 쏘아붙였다. 그것은 언젠가 심리와 치료라는 교육을 받았을 때도 보았던 문장이었다. 나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 학교를 떠나야 했다.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 도대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나에게 나를 심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Williams, 2005: 93).

인간은 아무리 끔찍한 상처를 받더라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인간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자신'을 '자신'으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구현된다. Dona Williams를 정서장애아가 아니라 Dona Williams로 받아들일 때 그 가능성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학대로 일그러진 신체상, 또 이중적 소외, 감정 왜곡 이 모든 것이 끝은 아니다. 그것은 과정이다. Cyrulnik(2009: 55-58)가 지적하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낸 '나쁜 엄마' 경우를 보면, 또 Dona Williams가 레이놀즈 선생님에 대해 느꼈던 소외경우를 보면 소위 상식 수준에서도 일어나는 구조적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애와 학대문제를 개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교육 구조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추측건대 그 시작은 피학대 경험에 맞서는 인간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수용에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삶의 전체적 과정에 있어서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을 이끌어나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이다. 신체상은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세계(주변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가 신체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자폐인 Dona Williams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의 신체상 발달 과정이 사회 구조적으로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통한 직접적인 관계행위들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알아나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적 존재로서,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 고유 감각을 발달시키고 이에 기초해 신체상을 형성한다. 이렇듯 신체상은 인간이 세계를 만나는 기초이자 정체성 발달의 핵심이 되어 삶 전체에 관여하게 된다.

둘째,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신체상은 그 내용이 소위 긍정적이든 피학대 조건 하에 형성되어 부정적이든 해당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나간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삶이기 때문이며 정체성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그 개인 몸의 역사이다. 인간의 신체는 단순한 생물적 기초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작용을 하는 인식매개체이며, 인간의 신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개인의 역사이다.

마지막으로, 피학대라는 극도의 소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체로부터 응답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자기자극행동들은 자신의 불리한 신체 경험에 맞서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나가려는 표현이다. 자기와 세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상호작용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거친 자극들은 본인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자기자극행동들은 그 얇은 필터를 보완하고 아픔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전(前)과정 즉, 이해받는 경험을 건너뛴 채 이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 그 개인에게 ‘보통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상적 상호작용은 늘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다. 장애영역에서 학대 혹은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형편에서, 또 신체상과 같이 인간정체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장애, 학대 그리고 신체상 및 정체성 형성 과정의 연관성은 향후 특수교육학 발전에 있어서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조하건대 인간의 정체성은 육체적인 것이다. 즉, 인간의 정체성은 막연히 정신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체경험에 기반한 삶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관한 논의가 장애영역에서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은우, 김경옥, 윤수연, 이소운 (2009).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서울: 양철북.
- 김성준, 김은정 (2009).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점진적 노출기법을 적용한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395-414.
- 김용희 (2006). 애착과 신체화의 관계에 대한 자기개념 변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25-36.
- 김진석 (2007). 민주주의 문화는 폭력의 다중적 상징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대와 철학, 18(3), 423-456.
- 김태련, 조혜자, 이선자, 방희정, 조숙자, 김현정, 홍주연, 이계원, 설인자, 손원숙, 홍순정, 박영실, 손영숙, 김영소, 성은현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노정숙, 이경숙, 김보애 (2003). 신체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7(4), 115-126.
- 문정희, 최정윤 (1996). 신체증상을 주소로 하는 정신과 환자집단의 방어기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17-127.
- 방희정 (2005). 모(母)의 체벌 신념이 체벌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체벌 충동성의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 교육심리연구, 19(3), 633-652.
- 이경숙, 이선우 (2002).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와 일반 아동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 차이 비교 연구.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6(1), 115-125.
- 이배근 (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1(1), 46-57.
- 이호철 (2001). 학대받는 아이들. 서울: 보리.
- 정 은 (2006).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관계효능감 발달을 위한 반(反)분리교육의 중요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557-582.
- 정 은 (2009a). 장애인교육학.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료 상담가 양성대학> 강의 발제문 (미간행).
- 정 은 (2009b). 지적 장애아동 발달에 대한 손상학(L. Vygotsky)적 접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35-53.
- 홍강희 (1997). 의사보고에 의한 한국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8회 국제학술대회, 197-226.
- 히타노 기요오, 이나가키 가요코 (2003). 유능감을 키우는 교실(위광희, 박원숙 옮김). 서울: 정민사.
- Breger, L. (2003).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홍강희, 이영식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Cyrułnik, B. (2006). 불행의 놀라운 치유력(임희근 옮김). 파주: 북하우스.
- Cyrułnik, B. (2009). 관계(정재곤 옮김). 서울: 궁리.
- Foucault, M. (1991). 광기의 역사(김부용 옮김). 서울: 인간사랑.
- Foucault, M. (2003). 감시와 처벌(오성근 옮김). 서울: 나남.
- Foucault, M. (2006). 임상의학의 탄생(홍성민 옮김). 서울: 이매진.

- Goleman, D. (2006). SQ 사회지능(장석훈 옮김).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 Grandin, T. (2006).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홍한별 옮김). 서울: 양철북.
- Jantzen, W. (1994). *Am Anfang war der Sinn*. Marburg: BdWi.
- Katon, W., Kleinman, A., & Rosen, G. (1982). Depression and somatization: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72, 127-135.
- Klein, S. D., & Kemp, J. D. (2009). 그때 엄마가 알았더라면(신홍민 옮김). 서울: 한울림 스페셜.
- Mead, G. H. (1934). *The social psychology of George Herbert Mead*. Chicago: Phoenix.
- Miller, A. (2005). 사랑의 매는 없다(신홍민 옮김). 서울: 양철북.
- Miller, A. (2006).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신홍민 옮김). 서울: 양철북.
- Root-Bernstein, R., & Root-Bernstein, M. (2007). 생각의 탄생(박중성 옮김). 서울: 에코의 서재.
- Sackett, G. P. (1970). Unlearned responses, differential rearing experience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by rhesus monkeys. In *Primate behavior: Developments in field and laboratory research*, Vol. 1. New York: Academic, 1970, 111-140.
- Sacks, O. (2006).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조석현 옮김). 서울: 이마고.
- Straus, M. A., & Stewart, J. H. (1999). Corporal punishment by American parents: National data on prevalence, chronicity, severity, and duration, relation to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 55-70.
- Sullivan, H. S. (1953). *Conception of modern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Voyat, G. (1984). *The world of Henri Wallon*. New York: London: Jason Aronson.
- Vygotsky, L. S. (2001). Defekt und Kompensation. In: Jantzen, W. (Hrsg.). *Jeder Mensch kann lernen -Perspektiven einer kulturhistorischen (Behinderten-) Paedagogik*. Neuwied: Luchterhand, 88-108.
- Waller, E., & Scheidt, C. (2004). Somatoform disorders as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7, 239-247.
- Waller, E., Scheidt, C. & Hartmann, A. (2004).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illness behavior in somatoform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nse*, 192, 3, 200-209.
- Williams, D. (2005). 도나, 세상을 향해 뛰어(차영아 옮김). 서울: 평단.

The influences of abuse on development
of child's bodyimage
- A case of Dona Williams with autism -

Cheong, Eun

Yeungnam University

Shin, Min-Jung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It is individual identity to play a key role in managing the whole life. Identity is continuously affected by others around and bodyimage is the essential constituent of identity.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influences of abuse on the development of child's bodyimage through the case of Dona Williams who has autism. It also intends to make the reality clear in which bodily development of disabled child is systemically oppressed. As a conclusion, it could be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child abuse, which has conventionally been practiced, and its possibil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disabled child. It is also stressed that various types of self-stimulus actions could be regarded as expressions against abuse and of explore for their true self. It can be maintained that human identity is not a merely spiritual structure, but an essential element of life which is constituted with concrete experiences of body.

Key Words

: Child-abuse, Bodyimage, Identity, Disability

논문 접수: 2009. 10. 27 심사 시작: 2009. 11. 13 게재 확정: 2009. 12. 18